

## 자주통일의 길

조국광복60년, 4월혁명45주년 논집 2005

- 발행처 : 사월혁명회
- 발행일 : 2005년 4월 15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혁명의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응시하면서 -

이 윤

(홍대부고 교사)

## 1. 들어가는 말

새로운 천년을 맞이한다고 지구촌 전체가 호들갑을 떨었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하마 2004년도 첫 달이 다 가고 있다. 1960년 4월 19일의 함성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한데 그로부터 44년이라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은 지금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다.

침략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체제 속에서 이라크 파병을 소리 높여 외치는 국익우선론자(?)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차떼기로 거금의 검은돈을 주고받는 정상배들이 설치고 있다. 또한 비행기 타고 부자 나라에 가서 미래의 병역기피자를 만드는 원정출산족이 있는가 하면, 아내도 집도 다 잃고서 제 아이에게 수면제를 먹여 한강물에 내던지는 딱한 남편도 있다. 그야말로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고 사회가 혼돈스러운 것이 맑은 유리 속을 들여다보듯 분명한 사실인데, 이것이 모두 누구의 탓이 된단 말인가?

## 2. 도덕적 해이를 살펴봄

이제 개괄적이거나 우리 사회에 만연된 어지러운 가치관의 혼돈상태를 훑어보기로 하자.

### 1) 정치적인 측면

4월혁명에 대한 반동으로서 이 나라를 엉클어 놓았던 5.16쿠데타 세력이 30여년간 이 나라에 끼친 해악은 따로 재론이 필요하지 않다. 다만 이 나라 이 사회에서 목적쟁취를 위해서라면 어떠한 수단방법도 다 기정사실로서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군사문화의 가치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에게도 그 구습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이다. 집권이 확실시된다고 기고만장하여 차떼기로 수백억 원의 정치자금을 갈취하고서도 그것을 규명하려고 하면 ‘야당 탄압’ 운운하면서 오리발을 내미는 뻔뻔스러운 거대야당! 이런 고양이 같은 철면피들에게 속아 조그만 사탕발림에 현혹되어 생선가게를 맡겼으니 나라가 제대로 될 턱이 있겠는가?

정계, 재계, 언론계, 법조계는 모두 다 저희들끼리 자연이다, 학연이다 하며 끼리끼리 놀아나더니 이제는 아예 인맥과 혼맥으로 엮히고설켜 나라를 온통 말아먹으려 하고 있는 한심한 작태! 정녕 이 나라가 누구든지 부지런히 일하면 잘살 수 있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인지 그네들에게 묻고 싶다.

### 2) 통일과 국제적인 측면

진정 우리 사회에서 민족을 생각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기득권세력은 얼마나 존재하는가? 국토가 분단된 지 어언 60년이 가까워 오건만 지금도 북에 대해서는 전생부터의 원수를 대하듯 으르렁거리는 서글픈 현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서 36년 만에 귀국한 송두율 교수에 대한 이 나라 기득권체제의 대응자세를 들 수 있겠다.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조항(제5조)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쟁을 저질러 놓고 뒷감당을 강요하는 미국의 요청에 꼼짝달싹 못하는 위정자들! 한술 더 떠 “실전경험 축적은 바로 국방력의 강화”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젊은이들의 피 흘림을 부추기는 여·야당의 냉혈한 같은 일부 정치인들을 본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병역기피율이 일반 서민들의 몇 곱이 된다고 했던가? 미국이 요구하는 어떠한 금전적 대가를 다 들어주고서도 용산기지에 미군을 붙들어 놓아야만 한다는 얼빠진 사대주의자들은 과연 어느 나라의 인종들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 3) 사회·경제적인 측면

가임여성 열 명 중 한 명 이상이 향락산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보라. 모든 것을 돈으로 치부하여 갖고 싶은 핸드폰 하나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조교제도 망설이지 않는 기본윤리에 무감각한 소녀들! 이익만 된다 하면 버젓이 사

기극인 줄 알면서도 죽마고우까지 피라미드 조직에 끌어들이는 몰염치함에는 친구의 전화조차도 불안하다는 자조가 뒤따른다.

신용사회를 부르짖으며 정책적 특혜까지 베풀어 카드회사를 부풀려 주더니 수십 수백만 명이 신용불량자요, 은행에 맡긴 돈까지 떼어 먹힐까 불안한 세상이 되어 버렸다. 이를 채워줄 빚은 모두 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요 후세에게 넘길 부담이 되어 버렸다.

#### 4) 교육현장의 문제들

이제 구체적으로 교육현장인 학교사회가 그동안 변질된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9년 전, 소위 5.31교육개혁안이란 것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틀도 세계화를 부르짖는 신자유주의의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신교육과정의 도입과 입시제도의 다양화라고 말할 수 있겠다.

수요자 중심의 교과과목 선택이란 새 교육과정은 명분만 그럴 듯할 뿐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검증단계도 거치지 않고 진행된 혼돈의 결과물이었다. 학교에서는 새로운 과목을 준비할 인력이나 시설이 준비되지 않았고 학생들은 적성과 미래를 생각하는 대신 점수 따기 쉬운, 대학 들어가기 좋은 교과목만을 선호하였다. 기존 교과목에 맞춰져 있던 교사 수급에 차질이 일어났으며, 수업시간이 남는 교사들에게는 몇 달간의 강습만으로 신규 과목을 가르치라는 무리수가 동반되었다.

입시방법의 다양화라는 구호는 고등학교 교육을 완전히 허수아비로 만들고 말았다. 1학기에 수시모집을 하여 합격한 학생은 고3생인가, 대학예비신입생인가? 고등학교 교사조차도 완전히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대입전형은 변칙적인 과외만 더욱 조장하고 입시 카운슬러라는 신종 직업까지 만들고 말았다. 부모의 경제력에 의하여 입시의 승패가 갈리는 부익부 빈익빈의 굴레가 공정해야 할 입시제도를 위압하고 있다.

### 3. 대안은 있는가 – 의식혁명 하나뿐

이러한 혼돈에 대하여 우리는 비판만 하고 있을 것인가? 답은 물론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연말에 예산국회에서 계속사업이었던 친일인명사전의 금년도 편찬비용 5억 원이 몰지각한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잘려나간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에 대한 항의와 그 대안적인 해법으로서 1월 8일부터 편찬비용 성금 모으기를 진행한 결과, 불과 11일 만에 목표액을 거뜬히 뛰어넘는 결실을 거둔 쾌거를 확인하고 있다. 삼일절에 1억 원을 넘기고 광복절에나 가서야 목표액인 5억 원을 채울 수 있을 거라던 행사 주최측인 민족문제연구소로서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일이 아니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들, 우리 이름 없는 시민들의 끈기 있는 저력인 것이다. 이는 단순한 네티즌의 승리 이상인, 시대의 흐름을 따르는 사람들만이 승리자가 된다는 교훈인 것이다. 아울러 다가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펼쳐지고 있는 시민 사회단체들의 ‘될 사람’ 당선운동과 ‘안 될 사람’ 낙선운동을 응시하라! 냉전체제 지향적인 수구보수 사이비언론들에 가려져 있던 진정한 민중의 힘은 한 줄기 강렬한 햇빛이 되어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비추고 있는 것이다.

지난 17일, 늦봄 문익환 목사 10주기를 맞아 추모사절로 내려온 북측의 인사들과 화기애애하게 어울려 모두들 손에 손을 맞잡고 춤판을 벌인 사실을 상기한다. 구시대적인 국가보안법이 잔존해 있을지언정, “통일은 됐다” 하시던 문 목사님의 외침은 이미 ‘민’의 통일을 틀림없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또한 정정당당한 대화의 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음지에서 비겁한 시비를 걸어오는 수구세력의 하수인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허약한 그들의 실체에 일말의 연민이 들은 어쩔 수 없다.

너무나 억지 투성이었던 3.15부정선거에 항의하고, 나아가 위압적인 친미반공의 가면을 뒤집어쓰고서 12년 독재를 자행한 이승만 정권을 쓰러뜨린 4.19의 혁명정신! 우리는 지금도 이백 명에 가까운 영령들의 희생 속에서 민주주의를 희생시켰음을 상기한다. 5.16의 반혁명으로 굴절되고 30년 이상 왜곡되어 왔던 진정한 민주혁명의 정신은 바로 오늘에 다시 살아 있어 어지러운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하는 승리의 의지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한다. 우리 국민은 위대하다!!!

**사월혁명회보 제71호(2004.1)**